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와 봉사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주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선교주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된 젊은이들을 기다리는 중 오늘 1-5부예배시 선교헌금 작성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오늘은 선교주일이다. 그러나 선교주일에 걸맞아 보이는 두드러진 행사는 없다. 그것은 선교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임하시는 은총에 따라 성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실천들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사로 치러지는 선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일어서는 선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교회는 올해 12억원의 선교헌금을 책정해 놓고자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

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캐나다와 수단, 이집트 등지에 대한 선교당사를 실시하고 성도들과 특히 젊은이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부와 청년부에서는 젊은이들을 선교훈련에 동원하고 단기선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

한편 오늘 1-5부예배시에는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성도들은 지난 주일에 받은 선교헌금 봉투에 기도로 준비한 금액을 적고 1월분 선교헌금을 넣어서 헌금하면 된다. 충헌의 온 성도들은 이 헌금에 담긴 선교에 대한 헌신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불붙여져 1998년 이 선교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98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2월 15일 실시, 신청은 1월 25일까지
2월 1일, 8일(주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2월 15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일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진익 목사)	교육관 514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현민 목사)	교육관 514호	교회론 (전형중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김희주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1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여의도 찬양예배, 문답)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학교 겨울행사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장 정하우 장로는 “겨울행사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가르쳐, 말씀을 삶으로 끌어오는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행사들로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각 부서의 행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1, 2월 중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중요한 행사를 실시한다. 이 특별한 기회가 연중계회 중 하나를 치러 ‘버리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더욱 성실한 기도와 준비로 임해야

1998년도 직능전도회

교회는 전도위원회 산하의 직능전도회 회장 및 지도 교역자를 아래와 같이 임명했다. 맡은 일을 따라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지원해야겠다.

직능전도회 회장 지도
경찰전도회 이갑재 장로 이승수 목사

교정전도회 김영주 장로 김재철 목사
문전도회 박민건 장로 현상민 목사
군전도회 이승현 장로 정갑진 목사
매스컴전도회 정종식 장로 김동식 목사
법조전도회 이찬록 집사 정현민 목사
실업전도회 김준원 장로 이홍성 목사
의료전도회 손철 장로 박경한 목사
학원전도회 김단우 장로 조문관 목사

1998년도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실시 개요

부서명	주제	주제찬송	주제성구	참소	기간	강사
영아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찬 484장	요 14:14	선 103호	2/23(월)-2/24(화)	한영준 전도사
유아부	예수님의 사랑	찬 484장	요 1:11	교 212호	2/23(월)-2/24(화)	김정자 전도사
유치부	빛의 자녀	찬 169장	요 1:4	교 205, 201호	2/23(월)-2/24(화)	정연희 전도사
유년부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찬 78장	창 1:1	교 314호	2/23(월)-2/24(화)	김영진 전도사
초등부	예수님의 말씀과 회개	찬 245장	딤후 3:15	교 307호	2/23(월)-2/24(화)	염현일 전도사
소년부	성령 충만한 어린이	찬 169장	요 14:26	교 205, 201호	2/23(월)-2/24(화)	한승일 전도사
중등1부	숨겨진 보물찾기	찬 91장	골 2:3	충헌기도원	2/18(수)-2/20(금)	박노철 강도사
중등2부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	찬 235장	시 119:105	충헌기도원	2/23(월)-2/25(수)	정갑진 전도사, 이훈 장로
중등3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찬 350장	롬 12:1-2	교육관	2/23(월)-2/25(수)	박철구 집사
고등부	예수님만 바라보라	찬 204장	히 12:2	갈릴리홀, 아현홀	1/22(목)-1/24(토)	이준경 강도사
대학부	성령 충만한 어린이	찬 102장	행 4:13	갈릴리홀, 아현홀	2/9(월)-2/12(목)	김성관, 조문관 목사
청년1부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국 청년 기독교인	찬 102장	마 9:35	충헌기도원	1/16(금)-1/17(토)	이종관, 조재민, 최진우 전도사
청년2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찬 519장	벧전 2:21	베다니홀	1/19(월)-1/20(화)	김우주 목사
장년1부	성신한 교회의 일꾼이 되자	찬 397장	고전 4:2	갈릴리홀	2/11(토)-2/12(주)	이종관 목사
신앙가장부	연애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찬 272장	창 2:24	교 201호	2/7(토)	박철구 목사
사랑부	예수님은 나의 구주	찬 94장	마 11:4-5	교 107호	2/26(목)	이홍성 목사
에바다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	찬 442장	시 23:1	충헌교회	2/25(수)-2/27(금)	박민건 전도사
영아교육부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찬 387장, 390장	고후 20:1-29	충헌교회	2/28(토)	로봉원 목사

전도위원회 영성훈련 1월 18, 25일, 2월 1, 8일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영성훈련이 1월 18일과 25일, 2월 1일과 8일 등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말씀운동(박경한 목사), 기도운동(이홍성 목사), 교회사랑운동(김희주 목사), 전도운동(김필수 목사) 등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영성훈련의 훈련전도는 교구별 남녀전도회 임역원(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각 부 부장) 및 직능전도회 임역원과 수장을 원하는 평신도 등이 다. 훈련시간은 오후 3시부터 한시간이며, 장소는 갈릴리홀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바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영성훈련 기간 중, 전도위원회 산하의 각종 모임은 이 시간을 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이사야 12:1-3)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의 시민들이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받는 복을 살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언제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 날에...”(1절)

“그 날”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날과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떠나든지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 날을 말합니다.

2.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1)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 는 그 노가 쉬었고...”(1절)

“그 노가 쉬었다”는 말씀은 속죄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도 할 수 없고 할 때도 벗어 버리지 못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세상에서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악의 사기꾼입니다(요일 1:8, 10). 죄없는 사람은 땅 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날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신세가 누리는 복입니다.

죄는 신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물려서 받은 허물과 고의로 악하여 범하는 죄와 알고도 고의로 범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네 가지 결과를 가져 옵니다. 첫째로, 부끄러움을 가져 옵니다. 둘째로, 고생을 가져 옵니다. 셋째로, 죽음을 옵니다. 넷째로, 마지못하는 지옥불이 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그 날에 “주여,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나니” 고백한 하느님 우주의 대법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노라” 하시며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하시면 감호선명 자가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그 날의 기쁨은 한이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 또 나를 안위하시오나...”(1절)

시편 91권을 보면, 세상은 첫째로, 악마가 가득한 곳입니다. 마귀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베크라는 성전 안에서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질병이 많은 곳입니다. 셋째로, 실재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넷째로, 악한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안위’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땅 위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인간을 위로할 분이 없습니다.

3. 천국 백성이 위로의 복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면 다섯 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증거를 꼭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2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 사람이 죽어졌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만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 라고 믿으니 겁이 없습니다.

도단이라는 산봉우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는데 아람의 막강한 군대가 아람을 사해 도단을 겹겹이 포위하고 이른 아침에는 개미떼처럼 올라옵니다. 그러나 위기에 몰락하여 이제 는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겁에 질려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털갈만큼도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기도만 합니다. 종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변을 보니까 하늘나라의 불수레를 탄 천군이 불꽃검을 들고 엘리사를 두루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왜 겁이 없습니까? 천군 천사가 그를 지켜 주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요...”(2절)
힘이란 실력을 말합니다. 요셉은 지혜의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세상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도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굶어 죽을 두렵죽을 살려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말의 권위가 있었고 모든 일을 감당할 실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힘이 생긴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감시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속죄 함과 안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안위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힘이 생기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평안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다섯 가지 증거가 있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증거가 있는 생활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 나의 노래시며...”(2절)

노래는 찬송을 뜻합니다.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몸이 병이 들면 신음소리가 나오기 쉬워도 노래소리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한숨은 나오기 쉬워도 찬송이 나오기는 힘이 듭니다.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영육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승리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한 골을 넣으면 웅얼이가 절로 납니다. 그러나 한 골을 빼앗긴 편에서는 노래소리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노래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영원히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죽는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4)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 나의 구원이시리라”(2절)

이 평안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평안입니다. 지금 무슨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평안이고, 어느 시간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육박 속에서든 토굴 속에서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안인데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5)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라”(3절)

이것은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복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은 낙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세수하게 하고 빨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천국에 가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줍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내리면 허리가 아프고 땀이 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물을 길어 줍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읽고 오늘도 읽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자주 길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이제 하고 오늘도 하는 것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 길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또 읽고 기도를 또 하고, 전도를 또 해야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임금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죄값을 치고 형벌이 두려워 떨다가 죽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법사에 감사 찬송을 부르며 살고 담대하게 선 일을 많이 하여 칭찬을 듣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하늘나라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속죄함과 안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안위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힘이 생기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평안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다섯 가지 증거가 있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증거가 있는 생활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구원의 우물에서 부지런히 물을 길어셔 나다 마시고 담대하게 선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도하고 계속하여 성경을 읽고 계속하여 전도하도록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하여 물을 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만민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

● 김성관 목사의 다음주일 설교 ●



마른 뼈를 살리는 말씀의 은혜 (에스겔 37:1-14)

나눔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있는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환경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그 백성을 말씀으로 회복하실 계획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회개하게나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성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1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아름다운 동산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평화로운 초원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황량한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눈 앞에 나타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많았더라"(2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삭막한 상황을 보여 주셨고 에스겔은 얼마의 희망도 가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곳의 뼈들은 다 메달렸으며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육신을 그토록 마비시켜 한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은 0.01%조차도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수많은 마른 뼈들의 광경을 자세히 지켜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와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3절).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실한 믿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 말씀에 들을지어다"(4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

은 하나님의 종이며 살아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죽어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하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른 뼈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생기와 힘을 줄, 또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으시며 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깨닫도록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4-5-6절).

왜 에스겔은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

께 순종한 결과 마른 뼈들이 살아나 수많은 산 생명을 되였습니다. 그것이 또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를 이루는 강건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능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힘있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버려서 소망이 없고 메마른 그의

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질 소망을 보여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꺾어진 돌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롬 11:17).

사도 바울은 또 기록하기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외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9) 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람을 폐하시고 우리로 영생을 갖게 하신다고 언급합니다(딤후 1:10).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합니다(요 14:6).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요 5:21).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주님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요 1:15). 요한복음의 맨처음 서두에 쓰인 말씀이 모든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요 1:1).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마른 뼈에서 영생을 가진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기술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일들을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생할 중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경건하고 충성으로 순종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살

하나님께서서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마른 뼈에서 영생을 가진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먹으려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산 8:3, 마 4:4). 예수님께서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이 관한 것을 그의 두 제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선지자 에스겔은 이러한 경령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눅 24:27).

에스겔은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힘줄, 가죽이 덮여지는 것이었습니다(7-8절).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르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났으니 서늘한 큰 군대더라"(10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

백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12-13절).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분의 택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능력의 말씀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내 여호와와 이 일을 말하고 이온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여호와와 말미암아 하사라 하라"(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신약

선교 바로 잡기

명분의 선교에서 영혼 구원의 선교로

주께서 깨끗한 젊은 영혼들을 쓰시기를

최근 교회의 선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는 '사람의 명분과 형식에 매인 선교를 그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실제적인 선교로 나아가자'는 단순하고 명백한 기치로 요약된다. 우리 교회 선교 1세대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열매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교의 틀에 매여서, 당장 남모르는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를 그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영혼들에게로 돌리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작년 말 몇가지 중대한 결단들을 내었다. 이스라엘 성지연구소 건립 목적으로 보내기로 한 3백만 달러와 회사 설립의 형식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해야 하는 홍콩의 상황에 따라 보내기로 한 33만 달러 지원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교회의 후원을 통해 자립할 여건이 충분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영혼 구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 선교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러한 조강경 조치에 따라 성도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는 데서 오는 뒷말들이 다소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문제

와 맞물려 급등한 환율을 고려할 때, 또한 지금 당장 죽어가는 비참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일로 방향을 급전환해야 할 만큼 급박한 선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이러한 결단은 우리 교회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선교정책을 보다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교적 상황을 생

각할 때, 명분

을 내세운 낭비적인 선교하드웨어 구축에 선교비를 쏟아붓기보다는, 이 막대한 자원을 영혼을 살리고 기와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도록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 만큼 중대한 선교적 과제는 없다.

이러한 안목을 통하여 현재 교회는 현실적인 안일함과 타협하지 않을 순수한 젊은 영혼들이 이 일에 앞장서 줄 것

을 고대하면서 이들을 통해 소외된 영혼들이 참된 세계 구석구석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뿌리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감성만 폭시는 우리 교회의 선교비가 '복음과 함께 나일강에 뿌려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일년 52주를 모두 선교주일로 생각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전한다.

선교에 대한 온 교회와 성도들의 순전한 관심과 기도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대열에 앞장서고, 선교위원회와 실무자들이 뒤에서 힘있게 섬길 때, 1998년도는 '선교총현'의 기치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사건 / 중현 젊은이들의 단기 선교 훈련 모습)



* 선교의 황무지 수단을 가다 (2) *

원주민들과 함께 눈물로 드린 아름다운 예배

하 대선
(장로, 행정위원장)



▲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원주민들의 양육과 양육된 이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미래는 밝아보였다.

외부에 임대해도 이 임대료로 교사 봉급 및 전기료 등을 간신히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서는 컴퓨터, 재봉, 전기배선, 자동차 수리의 4개 분야에 걸쳐 96명의 원주민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대 선교사님은 이곳 학생들에 대한 전도와 개종자의 직업 훈련의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선교적 접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은 김영대 선교사님이 사부설 한 칸을 빌려 쓰고 계시는 복음문서 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커피, 톱의 교통의 요지라 많은 원주민 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이므로 에어콜러 수리, 독서카드 제작, 전화 가설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얻은 2평의 초라한 방이었지만, 선교의 기지로 요

▶ 일행은 복음을 두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원주민들의 모습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간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센터 자체가 재정난으로 전기료마저 체납되어 단전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사터 한인교회(대우가 사용하던 창고)에서 크리스마스이브를 축하하는 '성탄의 밤 예배'에 참석하여 현지인과 교민 94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슬람 목사님의 설교와 현지 교민원에서 온 어린이합창단의 천진스런 찬양이 회중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

다. 다음날은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아프리카 대륙 영사의 선교지에서 맞는 크리스마스와 이색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아침 9시에 속소를 출발하여 충현선교원주교회연합회로 드리는 성탄절 축하예배 장소인 한국농장에 도착하니, 교민인도 집사가 일차계약으로 개간한 농장내의 숲속에 간소한 야외집회장이

마련되었고 낡았지만 엄포시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외교국가인 수단 정부가 기독교인의 공식집회를 허락한 유일한 남인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집회시간 1시간 전부터 원주민들이 부족별로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복음 두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줄을 서서 질서 정연하게 입장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그들과 굳은 악수를 교환하였습니다.

예배 순서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순서 사이사이에 찬송(무아로, 무반주)을 부르는데 얼마나 익숙하고 은혜로운지, 그리고 이슬람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눈빛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감동적인지, 시종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 주었습니다. (계속)

한 · 수직업훈련학교는 1994년에 한국국제협력기구(KOICA)에서 450만불이나 들여 설립하여 2년간 운영하다가 수단 정부에 인계하였으나, 수단 정부도 지원 능력이 없어 정비공장을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박 영 선
(교구)

총 헌교인이라든 줄곧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김성관 목사님 설교 중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93년 총헌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어릴 자녀를 낳아다이며 주일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겨우겨우 주일만 지키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교회를 빠져서는 안된다는 중압감으로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게다가 날 만드신 분이랴만 전정 믿한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하고 늘 갈등했습니다.

어느 해는 구원의 확신이란 것을 얻기 위해 땀과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데 천국 하면 흰 옷 입은 유명만 생각날 뿐 도저히 기쁨을 가질 수 없

습니다. 97년 그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늘 말씀 테이프를 들었고 동네 칠아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중 8월에 김성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눈이 띄어지는 듯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주시며 ‘노을람습니다.’ 하시면 정말 놀라움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래!’ 하시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생활하던 것들이 아닌 걸로 깨달아졌습니다. ‘좋 습니다!’ 하시면 정말 너무나부 좋아 눈물이 쾅쾅 쏟아졌습니다. 아! 구원 -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이렇게 후련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영적인 힘이 더욱 완벽하게 펼쳐지는 곳이 천국이겠구나 하며 서서히 내 신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않은 삶입니다.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바뀌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딪치는 일상생활 게다가 변화되지 못한 내 습관, 내 사고, 내 제재, 모든 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내 육체로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것들에 늘 힘겨웁니다. 그래서 주님이나 더욱 기려드립니다. 가장 위로는 말씀, 한 걸음씩 한 걸음씩(One step is enough). 거창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변화가 아닌 십자가 예로의 내 걸음 한 걸음의 나의 모습이 예수님께로의 변화받은 삶이라는 위로

를 받았습시다. 새벽기도회와 영적인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는 새벽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내겐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생업이 있고 게다가 현대인의 수면 습관처럼 오후미 체질이며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 집안 일도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하며 지나지 못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갈릴리움에서 분당으로 옮겨졌다 하고 주위의 집사님들과 마리아 7교회 몇 분이 하루 서너시간씩 자를 자며 나보다 더 활기찬 기쁨으로 찬찬한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습시다. 그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여전했습니다.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습시다. 그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두 손 두 발 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

님 살아 계심을 보여 달라는 구약창조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시다. 흥해가 갈라진 거죠. 그 후의 승리의 날들.

적와 마찬가지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을 걱정하신 때까지 쉽지 않습시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으로 바뀌기에는 순간순간 배아픈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 - 예수님의 발에 비친 향유를 찾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특목한(?) 세상 이치에 맞는 유대의 생각, 유대 그 특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과거회(?) 신앙 생활하다가는 신앙도 생활도 충실치 못하리라는 계산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일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 새벽기도회에서 더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 못자고 일어나는 불행한(?) 성도에게 조금 잔인한 듯한 말씀이지만 자꾸오오 향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을 야만하며 우리의 이기적인 작고 성령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봅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 탐방 - 아멘오케스트라 ◆

“온전한 예배의 수종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찬양에 전력투구하는 1998년 -

음악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위대한 종합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갈래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로 부여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 그것은 시를 창조하여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예술의 여러 갈래 중에서 교회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음악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곳에 음악이, 음악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기독교인은 음악과 더불어 신앙을 지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시대인수록 음악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도구라 되어 있다.

음악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음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체험을 하는 데도 음악은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음악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음악은 곧 예배이며 기쁨이다. 음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음악을 위한 여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있다. 그런데 새해초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다. 아멘오케스트라가 1998년 1월 첫주에 출범하여 아멘찬양대와 함께 주님께 영성을 돌린 것이다.

아멘찬양대는 남선우 장로님이 깃발을 높이 드신 대장님이고 이수철 집사님이 지휘를 하고요 오광호 집사님은 악장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를 극구 부인하시는 대학교수님이 교회 음악의 질을 높이 보겠다는 사명을 갖

고 오케스트라의 편곡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예사로 보았지만 아멘오케스트라의 출범 의미는 이렇듯 많은 분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아멘오케스트라의 총 대원은 37명이다. 이 찬양대의 출범을 위해 찬양위원회에서는 1년 전부터 구성하였고 6개월 전에 본격적인 조직 구성을 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 모집을 위해 외부에도 문을 열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교회와 외부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두어 외부에서 선발된 단원들도 모두 우리 교회으로 등록한 이후에 정식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단원이 구성된 후에 단원들은 강훈련에 들어갔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였으면 지난 1월 1일은 신정인데도 교회에 나와 새지간이나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첫 연주를 감수하게 되는데 첫 것에 대해 악장님은 지휘자의 노고를, 지휘자는 악장님의 노고를 높이셨다.

이 오케스트라의 1998년의 목표는 찬양에 전력투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예배 시작 전에 15분간 특별찬양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단원들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절기 행사마다 연주를 할 계획이다. 특히 추수감사절에는 아멘오케스트라의 기량을 발휘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아멘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는 아멘찬양대의 구성원중에는 신앙 연륜이 깊은 분이 있다. 이 분들은 단원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많은 기도로 뒷받침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 찬양대는 정기적으로 자체 영성훈련도 한다. 또 아멘찬양대에는 부부들이 많은데 부



▲ 예배 시작 전에 15분간 특별찬양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단원들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단원들.



부 중에 30명씩 ‘한 소리로’라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그들 평생의 사명이 찬양이라는 믿음으로 오직 찬양하는 데 마음 쏟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멘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탁월한 자랑거리는 출석률이다. 이 부서는 매주 목요일에 연습을 한다. 이때의 출석률은 평균 80%를 웃돈다고 한다. 이렇게 출석률이 높은 비결은 아마도 단원 자신이 넘쳐 나는 가족적인 유대감과 음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사명감이라고 진단한다.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로는 성도들로써 새로 출범하는 아멘오케스트라에 관심을 가져 주고 기도해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일반적으론 찬양이라고 하면 성악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는 기악적인 면도 깊게 주시라는 바람이다.

예배를 수종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교회 음악을 바라보았다는 생

각이 든다. 단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준비했다면 그것에 맞추어 찬송하는 우리도 오히려 경건한 예를 갖추어 감사한 마음으로 찬미해야 한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찬양 역시 신성한 작곡이 있다.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실어다 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우리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음악의 누비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도합까지 아멘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는 영원하리라. 새로 출범한 아멘오케스트라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글/정영희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이 달에 만난 사람

이정신 자매

예배당에 앉으면 맘이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정신이의 불편함 덕분에 온 식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달 초 당회장실에 전달된 시 한편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둥한 글씨, 하지만 온 정성과 담자국이 그득히 배어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은 깨끗한 사람과 예수님의 가슴이 담겨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우리 교회 30세 자매의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추천실에서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아주 맑고 밝은 웃음으로 맞이하는 자매의 얼굴에서 평화의 아름다움을 한껏 보았습니다. 이정신 자매와 그 어머니가 함께 지리했습니다.

- 반갑습니다. 자매님 첫 인상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네, 너무 밝지요? 정말 착하고 예뻐요.

이정신: 엄마, 파이팅!

- 어떤 동기로 목사님께 시를 써서 전달해 주셨나요?

이정신: 매년 30등 정도씩 카드와 연하장을 써서 고마운 분들께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큰 종이에 시를 써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분께만 보내게 되었어요.

- 그러면, 그동안 쪽글을 써 오셨나요?

어머니: 이 애는 사실, 몸이 이래서 국민학교를 못다녔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화책을 일 년 정도 열심히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동화책을 열심히 읽더니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열 다섯 살이 됐을 때, 이방자 여사가 세운 명혜학교 중학교 과정에 입학해서 다녔어요. 그 때 그 학교가 광명에 있었는데, 제가 여기 봉원동에 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왔다갔다 하면서 돌봐줬어요. 애가 화장실을 가야하니깐요. 삼년을 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다가, 딱 한번 선생님이 봐주시겠다고 해서 아침에 안갔는데, 바로 그날 친구들이 휠체어에 탄 애를 데리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그만 손잡이를 놓아버려서, 크게 다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정신: 그 학교에 입학할 때, '어머니'를 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를 주제로 해서 썼어요. 선생님이 그 글이 너무 좋다고 안 주셨어요. 그 후로도 틈틈히 계속 글을 썼어요. 일기도 계속 쓰고 기행문도 썼어요. 그리고 시는 150편 이상 쓴 것 같아요. 다 모아 두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거의 20년 이상을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이 애를 고쳐보겠다고 방방곡곡 안다녔는데, 저가 너무 좋아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그 때가 1984년 2월 쯤이었을 거예요.

- 감사합니다. 정신 자매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나요?

이정신: 엄마가 운전을 안하셔서, 아빠(공무원)가 주일날 일을 가셔야 할 때, 교회에 갖는 것이 가장 싫어요. 그리고 몸이 이래서, 교회에서 마음껏 봉사하지 못하고 대예배만 딱 드리고 와야 되는 게 속상해요. 저는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 가장 감사한 일도 말해 주실래요?

이정신: 열 다섯 살에 처음 학교라는 곳을 가서, 단상처를 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리고 충현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일들이에요.

- 올 한 해 동안 개인적인 각오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정신: 성경책을 좀 마음껏 읽는 것, 그리고 제가 그동안 써온 시들을 시집으로 발간하는 게 올해 가장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방송통신대 국문과 2학년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어서 1년 쯤 쉬고 싶어요.

어머니: 안된다. 하는 길에 다 해야지!

이정신: 참! 한 가지 권의가 있어요.

아름다운 선물

한편의 별칭
꺼꾸리 꼬리
마음은 다하여
사람과는 달신
결국히 모든 이방은
맞이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대중부터 반만
가운 큰 입으로
속된 모습은
깊고 깊습니다

명곡과 보라
꽃향과 흰
주변의 자락을
가진 남고 빛
그러한 섬섬의
표본이 되었습니

영광은 영
온세상은
모든 생명의
오!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꺼꾸리 꼬리
만물의 창조주
한 없이 내리신
감동하기 어려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신 사랑의 주현
하루하루는
죽어가는
밤창하는
영생하는
십자가에 못 박

새살의 처음
다시 돌아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옵소서

1978년 1월 1일
정신관 목사님께
이정신 드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 시설은 다 좋은데, 예배당에 들어갈 때, 램프(원체가) 오르내리는 길에 요철(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끌어지지 않도록하는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주서위요.

- 고마워요. 나중에 꼭 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주일에 주간추천 편집실에 꼭 들려주세요.

이정신, 어머니: 고맙습니다.

밝고 평화로운 오후였다. 대화하는 내내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맛볼 수 있었다. 삼담!



원췌위 /
한없이 해맑은 이정신 자매.

오른췌위 /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불편한 몸이지만 정성을 기울여 옮겨 적은 아름다운 시 한편.

오른췌위 아래 /
“엄마, 나 이쁘지?”
“그래, 착한 정신이 덕분에 엄마는 참 행복하다!”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영아부에서는 지난 1월 11일, 1, 2주 예배시간에 전도사님 말씀 중 '우리의 자녀에게 밥과 우유를 하루 3번, 기기에 간식까지 잊지 않고 먹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기에게 읽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아바르스 마땅치 않은 자'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 우리 영아부 98년은 우리 '자녀와 함께 매일 성경 읽는 해'로 삼기로 예배 중에 모두 일어나 기도로 다짐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꼭! 해낼 것이다. 한편 386 이상의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다. 지금은 286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디스켓 사용이 불편하여 성도들의 기증을 바라고 있다. 영아부실은 선교관 1층 (송혜경 통신원)

▶ **초등부** / 초등부에서는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초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60분. 교사에게 학생이 486명인데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안타깝게도 담임 교사가 없는 반도 있다. 따라서 미래의 꿈나무를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증을 바라고 있다. (이미숙 통신원)

▶ **중등2부** / 중헌기도원에서 색다른 겨울수련회를 가기로 하고 벌써부터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준비 기도에도 들어갔습니다. 색다른 수련회의 목표는 다름 아닌 '신약성경 일독'. 아이! 대단하지요. 이 엄청난 계획이 기도 없이도 계획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실천 또한 기도였다는 가정하지 않은 일. 주님! 저희가 저희 안에 기쁜 소식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2월 23일-25일 중등2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그 1차 목표로 '신약성경 일독'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충헌 가족 여러분, 기도로 밀어주세요. (나성애 통신원)

▶ **고등부** / 새해를 맞아 수련회와 부흥회를 준비하였다. 지난 1월 16일 고등부 일학년, 전양대, 소그룹, 돌로소(학 교 모임), 각반 반장으로 봉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헌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주제와 빌 1:21의 주제 성구를 가지고 9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오리엔테이션과 부흥회 등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후 교회에 돌아와 모두 금요집회에 참여했다. 1월25(토)에는 중등3부에서 새로 올라온 1학년들을 대상으로 갈릴리

홀에서 신일성부흥회를 열었다. 모든 1학년들이 주님 안에서 고등부 회원들로 잘 적응하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간이었다. 조용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경각부의 공연이 있는 후 소그룹 소개가 있었다.

고등부 회원이던 누구나 참여하는 중등수련회가 1월 22일-24일에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예전과는 달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열게 되는데 영성을 강조할 것으로 프로그램이 주제 강하나 여러 특강(강사: 김성관, 장갑신 목사, 김광중 전도사)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23일(금)에는 금요집회에 참석할 예정이고 24일에는 갈릴리홀에서 오전 10시부터 14시 동안 학부모임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이는 성장기에 주님과 함께 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박주영 통신원)

▶ **대학부** / 5주예배(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신실로 집회 시간과 장소가 바뀐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던 가운데 지난 주일(11일)에 집회순서가 변경되었다. 집회후반부에 자리잡고 있던 교제 시간(새친구 환영, 파송식, 찬양, 성령 속화, 회개, 임명식 등)은 전담부서 담당자 지체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대학부 지체들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① 전도의 신교의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진다. ② 교제를 통해 영단감을 형성하게 한다. ③ 소그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대학부 집회의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예배가 아닌 열린 집회의 성격을 부각시켜 그동안 뒷전으로 몰려나온 수박에 없었던 지체들간의 유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대학부 집회는 제2교당 2층에서 오전 11시에 시작되며, 30분 전에 오면 임원들이 준비한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즐길 수 있다.

* 변경된 대학부 집회 프로그램

10:30-11:30 교제의 시간

(새친구 환영, 파송식, 찬양, 성령 속화, 회개, 임명식 등)

11:30-12:30 은혜의 시간

(찬양, 메시지, 기도, 드라마, 기도회, 간증 등)

12:30-2:30 GBS

3:00-4:00 5주예배

(최경은 통신원)

▶ **12교구** / 98년 1월 5일부터 23일 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한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이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고양시(원신도시 등) 등 광화문 지역을 담당하는 12교구(교무장 박승준 장로, 지도 교역자 전철종 목사, 김영중 전도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기도 주동 교구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부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에는 나라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모여져 165명의 교구 구성들이 새벽을 가르고 교회로 달려 나왔다. 또한 새벽기도회 진행 중에는 상당 분사 일정보다 함께 참여한 대 교동원 등 당일 새벽에 교회로 나오기 어려운 교구식구들은 이 봉사를 위하여 전날 교회에 머물러 기쁜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고 있다. 날마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금요집회에는 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성을 물려드리기를 기대한다. (이혜자 통신원)

▶ **14교구** / 14교구 지도 조준재 목사의 막내 아들 윉의 백혈병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말자 통신원)

▶ **15교구** / 0시의 장 밖에 원인이 필멸, 꽤나 쌓인데, 차는 동 마는 조건으로 일어난 새벽 4시 - 온 천지가 새하얗다.

15교구 첫 새벽기도 총동원의 날 5일, 오! 주님 IMF('m'F)집회) 내일(?) 내일(?) 1997년 민족의 수치를 원호와 같이 회개 뉘었심의 성리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소사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련 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교회는 1998년 관아, 동국인들을 어둠을 밝히는 차양 행렬이 충성(忠)스럽게 고개(峯)을 오르고 있다. (한숙정 통신원)

성경교사 및 성가경연 전국대회 성실한 준비에 결맞는 열매로

지난 1월 8-9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총회 주관 전국 성경교사 및 성가경연대회에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성실한 준비에 결맞는 열매를 거두어 들어왔다.

성경교사 부문에서 초등부 3학년의 오라와와 4학년의 배성은, 장년부의 백영숙 성도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고, 중등2부의 하태현과 이사라는 각각 특등상과 1등상을 수상했다. 또한 성가경

연대회에서는 소년부 전양대가 금상, 중등2부 중창팀이 장려상, 유년부 문성호가 모범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중등3부 이하나양은 독창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1월25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 찬양대 / 지휘: 장기범, 반주: 김윤경
· 오케스트라 / 악장: 윤혜경
〈찬양곡목〉
· 찬양대 주를 영원토록
·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 자비로운 주 하나님

◆ 3부예배

할렐루야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 찬양대 / 지휘: 김철관, 반주: 조희영
· 오케스트라 / 악장: 김유경
〈찬양곡목〉
·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한 364장)
· 십자가 그늘 밑에(한 471장) 오케스트라
· 주 예수여 은혜를(한 486장) 오케스트라
· 하나님의 전리 등대(한 276장)

◆ 4부예배

아인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 찬양대 / 지휘: 이수철, 반주: 김갑숙
· 오케스트라 / 악장: 오광호
〈찬양곡목〉
· 내 속을 정한 마음을 주로서
· 그 옛날 주가 결으신
· 캄캄한 길 다했으니
· 아 하나님의 은혜로(한 410장)
· 사랑의 왕 내 목자

◆ 5부예배

대학부 중창단
· 리더: 구자은, 반주: 민희정
〈찬양곡목〉
· 영혼의 옛날 예수여(한 67장)
· 오 나의 기르시는 목자(한 453장)
· 우리의 주를 찬양하리라
· 내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 511장)

직원모집

◆ 교회 직원

1. 직종 및 자격
- ① 사무원, 방송기사
- 30세 전후의 세례를 받은 남자
- ② PC 사용이 가능한 자
- ③ 미혼자
- 40세 전후의 세례를 받은 여자
2.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문의: 총헌교회의 사무국
(552-8200, 4002-4028)

◆ 복직자 직원

1. 직종 및 자격
- 생활지도교사 - 조대출 이상 장
- 예인 시절 봉사자 우대
- 문의: 총헌교회의(564-4885)

① 새해를 맞는 장년1부 ①

총헌교회 40대 성도님들께!

1997년도에 열었던 과기로 돌려 보내고 1998년도에 맞으셨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믿자들이 보리교회를 힘겹게 여기며 일할만 양식을 기다리던 때를 잊게 하는 축복으로 채워 주셨던 한, 이리하고 우매한 저희들은 이 풍요로운 축복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향락과 사치와 부패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여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감동적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고 주님의 백성으로의 품성을 키워 주시는 더 큰 은총으로 채워 주시고자 사면을 주신 줄은 알고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뜻을 실현하며 살

고자 무를 꿰고 회개하는 간구가 있어야 될 때인 줄로 알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장년1부는 40대 성도님들의 성경공부 교회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성도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한 간증을 나누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배움과 교제가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

인생 40대는 살아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이며, 다시 남은 여생을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연령입니다. 특히 우리 이 연령층은 많은 변화와 시련을 극복한 세대로 후배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이기고는 지혜도 물려 주어야 할 세대인 줄로 생각합니다.

장년1부 성경공부 강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이신 박형용 목사님으로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주시는 성도

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대학원 강의를 강의로 한 풍도 난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6,7명의 만원성으로 반강제인 긴밀한 친교를 이룰 수 있으며 좋은 신앙 생활에 동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을 맞아 여러 가지 삶의 설계를 이루시는 중에 장년1부 교회학교에 부부가 함께 등록하시어 성숙한 성도의 바른 지식과 삶의 정지에 이르신, 그리하여 주님의 넘치는 은총을 누리시는 중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장년1부는 주일 3부예배 후

오후 4:00 후에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의 가정과 생업 외에는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장년1부 부장

은 경 수 장로 드림

교회소식

● 알림

1. 오늘은 신구약 / 오늘 1, II, III, V 부에서 신구약금을 드립니다.

2. 제1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25일까지 구구담당 구역장에 신청하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2월 1일(주일) 1500-1650, 2월 8일(주일) 1500-1550, 교육관 314호, 307호

· 유아: 2월 8일(주일) 1600-1650, 구구담당 장소

· 학습, 세례식: 2월 15일(주일) 찬양예배시, 분당

· 유아세례: 2월 15일(주일) 1500, 갈릴리움

3. 남나전도부 임원 및 전도부동 임원임명 예정 / 오늘, 25일(주일), 2월 1일(주일), 2월 8일(주일) 4주간 1500부터 1600까지 갈릴리움에서 있습니다.

4. 회개성문 교육 / 2월 15일(주일) 1500부터 1600까지 교육관 307호에서 있습니다(회개성문 사도전 제1회 - 대성 남나전도부 회개, 부회개, 교육원회 회개, 부회개, 가리원회 총무장도 회개, 회개)

5. 회개장식 / 1월 중 대성 임원회의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전도와 자비로써 회개장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타이바 집안 / 오늘부터 5부에서와 찬양예배에서부터 타이바를 운영합니다. 태우, 초, 초년부를 대상으로 1000부터 1400까지 교육관 203호에서 시작할 교육이 있습니다.

● 모임

1. 장로 회오세끼 / 2월 20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행정위원회 월례회 / 2월 15일 1500, 후원동선(1100 고교동선)

3. 신임전도부 월례회 / 오늘 1500, 교육관 212호

4. 신임전도부 목요기도회 / 22일(목) 새벽기도 후, 갈릴리움교회

5. 신임전도부 주일기도회 / 2월 15일(주일) 1530, 신임전도부

6. 안수전도부 월요세끼 / 19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7. 권사회 제3회 월례회 / 21일(수) 1부 예배 후, 사무실

8. 권사회 제3회 월례회 / 21일(수) 1부 예배 후, 유아부실

● 남나전도부

1. 바 줄 2 / 오늘 구구모임 후, 아멘홀

2. 바 줄 4 / 오늘 1500, 교육관 202호

3. 바 줄 5 / 2월 15일(주일) 1830, 갈릴리움

4. 바 줄 11 / 오늘 구구모임 후, 영아부실

5. 바 줄 12 / 오늘 구구모임 후, 교육관 207호

6. 바 줄 15 / 2월 15일(주일) 1830, 집사대(822-3500)

7. 바 줄 16 / 오늘 구구모임 후, 임아부실

8. 바 줄 17 / 오늘 구구모임 후, 교육관 307호

9. 베드로 5 / 오늘 1500, 복지관 지하2층

10. 베드로 8 / 24일(토) 1830, 회개장(296-8520)

11. 베드로 14 / 24일(토) 1900, 강직관 집사대(78-9908)

12. 요 한 7 / 22일(목) 1830, 갈릴리움

13. 요 한 12 / 22일(목) 1900, 김일성 집사대(308-1082)

14. 요 한 14 / 오늘 1900, 김일성 집사대(678-1571)

15. 한 나 8 / 21일(수) 1부 예배 후, 만나홀

16. 한 나 13 / 오늘 구구모임 후, 사무부실

17. 한 나 16 / 오늘 구구모임 후, 고등부 상대실

18. 에스더 1 / 오늘 구구모임 후, 교육관 407호

19. 에스더 2 / 오늘 구구모임 후, 아멘홀

20. 에스더 3 / 20일(월) 1100, 갈릴리움

21. 에스더 5 / 20일(월) 1200, 변복의 컨사대(226-2800)

22. 에스더 7 / 21일(수) 1부 예배 후, 만나홀

23. 에스더 11 / 오늘 구구모임 후, 교육관 208호

24. 에스더 12 / 오늘 구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25. 에스더 13 / 오늘 구구모임 후, 사무부실

26. 에스더 15 / 오늘 구구모임 후, 베다나홀

27. 에스더 16 / 21일(수) 1부 예배 후, 만나홀

28. 루디아 2 / 19일(월) 1100, 안장숙 집사대(544-3869)

29. 루디아 5 / 21일(수) 1부 예배 후, 만나홀

30. 루디아 6 / 20일(월) 1100, 갈릴리움

31. 루디아 7 / 20일(월) 1130, 유신전 집사대

32. 루디아 8 / 20일(월) 1200, 성직관(208-1999)

33. 루디아 10 / 22일(목) 1100, 이현전 집사대

34. 루디아 11 / 20일(월) 1300, 한숙영 집사(강종동)

35. 루디아 12 / 오늘 구구모임 후, 교육관 404호

36. 루디아 16 / 20일(월) 1130, 강경희 집사대(0345-95860)

37. 루디아 17 / 22일(목) 1100, 최영선 집사대(032-7037457)

38. 미리아 2 / 20일(월) 1030, 장담동 삼익A, 6601

39. 미리아 3 / 20일(월) 1100, 교육관 109호

40. 미리아 4 / 20일(월) 1030, 김일성 집사대(582-4889)

41. 미리아 5 / 20일(월) 1030, 예배대부실

42. 미리아 6 / 20일(월) 1100, 주재민 집사대(449-3106)

43. 미리아 7 / 20일(월) 1030, 만나홀

44. 미리아 9 / 20일(월) 1100, 김일성 회개장(439-2589)

45. 미리아 13 / 오늘 3부 예배 후, 갈릴리움

46. 미리아 17 / 20일(월) 1030, 김일성 회개장(0342-71-9238)

● 결혼

1. 이성순(이종선 씨의 아들과) 이명진(이재호 씨의 딸, 방순애 씨의 딸, 제17구) / 23일(금) 1200 갈릴리움

● 별세

1. 김명현 집사(김명현 집사 부친, 황진성 군사 사부, 제8구 중대장) / 11일(월) 13일 장례

2. 반효동 집사(반효동 집사 부친, 송정수 집사 장인, 제3구 대대장) / 14일(월) 16일 장례

3. 김일성 집사(이종희 집사 남편, 제9구 반포7구역) / 14일(월) 16일 장례

금주의 기도 제목

① 신구약일을 맞아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에 젊은 일꾼들을 세워 주소서.

② 2월 15일에 있을 학습·세례식을 앞두고 대상자들이 기도와 순종 가운데 깨닫기 준비되게 하소서.

③ 뜨겁게 일어나는 새벽기도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하소서.

④ 1, 2월 중 치러지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소서.

⑤ 예배 전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20분 전에 참석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⑥ 5부예배를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는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⑦ 세로이 창단된 아멘오페스트라가 찬양에 전력투구하는 1998년을 위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처럼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지혜를 베풀 주소서.

■ 원로목사

김장민

■ 위임목사

김장민

■ 부수석

이효성 김희수 조운재 이종대 현상민 박경한 김동석 한근수 이승원 김갑진 천영훈 이병남 김재철 이숙수 김갑진 정현민 조운환 조칠수 김동하 차병권 김병대 김갑진

■ 협동목사

유영락 박영용

■ 선교사

이준교 안석원 김영대

■ 강도사

이준경 박도철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순화 정연희 현정남 정복민 장영자 임태주 김지희 배옥민 최지혜 손비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환 함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원만

■ 교육전도사

박민기 김현일 한승일 이종한 김영기 송현식 김창중 조재민 최원주 허유근

■ 교정전도사

박양관

■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 평신도선교사

유영대 김형선 이기성 김형철 고은빈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27	양현주	17	청년1부		142	이영숙	4	소망부		157	이혜정	19	청년2부	
128	이영숙	1	청년1부		143	유신전	8	청년1부	최순애(8)	158	한정현	19	청년1부	
129	윤세진	1	청년2부		144	유종민	8	청년1부	최순애(8)	159	김진숙	3	베드로	
130	배덕근	1	청년2부		145	김현숙	8	청년2부	정정애(9)	160	김진희	6	고등부	
131	박희숙	2	청년2부	한세훈(2)	146	손성일	9	청년2부	최애숙(9)	161	차승호	8	청년2부	박윤석(8)
132	박정영	2	청년2부	신인원(2)	147	김승영	10	소망부	김경재(14)	162	김민희	5	베드로	차순애(17)
133	김인범	2	청년2부		148	유승아	12	소망부	최희자(12)	163	장영희	19		
134	장진희	2	청년2부	박나연(5)	149	유미정	14	청년2부	심순이(3)	164	김진성	19		
135	김순준	3	청년2부	김진일(10)	150	이복희	16	소망부		165	송창식	1	베드로	이옥영(11)
136	양동준	3	청년2부	김진일(10)	151	양옥희	17	대학부	김옥자(17)	166	최성환	4	고등부	
137	신요숙	3	한나	한정철(3)	152	이유림	19	청년2부	이병희(8)	167	최현숙	4	중등부	
138	최희환	5	소망부	정영숙(5)	153	윤선영	19	대학부	이유리(1)	168	김수현	11	청년부	
139	이숙희	6	대학부	이창훈(19)	154	최재형	19	대학부	이재옥(13)	169	정지현	15	고등부	
140	구유난	7	무지진		155	이수진	19	청년1부	김성주(4)					
141	유하난	1	소망부		156	김승남	19	청년2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998. 1. 18. 출현. 3호

창세기 33장 ~ 출애굽기 6장

창헌 성경통신 강좌

(제) 교구 지역 구역 () 이름

1. 다음 성구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창세기 33 ~ 38장)

1.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온즉 하나님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
2.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명을 죽이고 다나를 세명의 집에서 데려 오고 ()
3. 아들의 이름은 베노나라 불렸으니 그 아비가 그 베나나니라 불렀더라 ()
4. 이들은 그 구구와 거처를 다른 아들 복종하며 아들 복종의 조상은 예서더라 ()
5.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사비대왕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
6. 그 형제 곧 손에 흉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

2. 다음 성구를 완성하시오. (창세기 39 ~ 43장)

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2.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3. 내 백성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희보다 높으니
4.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5. 베나니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백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3. () 안에 넣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시오. (창세기 44 ~ 50장)

1. 겔로 그러하기를 아나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잔의 종이 되고 ()
2. 이스라엘이 가로되 죽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
3.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이랬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업하는 자이니라 ()
4.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애로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니 번성하였더라 ()
5.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을 너로 애로 땅에 살고 나쁘게 살게 하시리라 ()
6. 유다는 사자 새끼이로다 내 아들이 너는 옳은 것을 행고 옳라 갔도다 ()
7. 요셉이 일찍 이집에 갔으매 그들이 그의 몸애 향 제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

4. () 안에 넣는 말을 넣으시오. (출애굽기 1 ~ 6장)

1. 하나님이 그 산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 하고 심히 강대하며
2. 그가 아들을 낳도 모세가 그 이름은 () 이라 하여 가로되
3.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 니라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 함을 듣고 머로 속히 강대하였더라
5.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 을 드리자 하노다
6.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교화되 나는 () 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